인권 트레일

테네시주 - 미시시피주 - 앨라배마주 - 조지아주

수십 년에 걸친 민중의 저항과 피땀으로 일군 미국 인권 운동으로 인종차별이 철폐된 평등 사회의 구현이 시작되었습니다. 4개 주를 도는 이번 투어를 통해 사적지, 기념물과 박물관을 찾아 역사적 순간과 그 주역들을 만나보세요.

테네시주 내슈빌

1일 차 - 테네시주 내슈빌

5번가의 울워스(Woolworth on 5th) 레스토랑은 1960년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비폭력 운동인 내슈빌 싯인(sit-in, 좌석 점거)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당시 백인 전용이었던 런치 카운터에 흑인들이 앉아 저항을 표했던 울워스는 근사한 모습으로 새단장해 현재 영업 중입니다. 상징적인 런치 카운터에 앉아 싯인 참가자의 10가지 행동 규칙(Ten Rules of Conduct)을 읽어보고 내슈빌 공립 도서관(Nashville Public Library)의 인권실(Civil Rights Room)을 찾아 흑인 인권 운동 역사도 알아보세요. 당시 벤 웨스트(Ben West) 시장이 마침내 인종차별의 비도덕성을 인정하면서 평화 행진이 끝나고 공공시설에서의 인종차별 종식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역사적 장소 데이비슨 카운티 법원(Davidson County Courthouse)도 방문해 보세요. 바로 옆에는 자유의 기수(Freedom Rider), 거리행진과 싯인 등 내슈빌의 인종차별 철폐를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을 그린 콘크리트 벽화 위트니스 월(Witness Walls)도 있습니다. 숙박: 내슈빌

2일 차 -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헤닝과 멤피스까지

내슈빌을 떠나 1시간을 달리면 알렉스 헤일리 박물관 및 자료관(Alex Haley Museum and Interpretive Center)이 있는 헤닝(Henning)에 도착합니다.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어린 시절 집이기도 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를 기리는 박물관에는 실물 크기의 노예선 모형이 있습니다. 1시간을 더 달려가면 미시시피강(Mississippi River) 유역의 멤피스 다운타운에 도달합니다. 노예 탈출에 사용된 지하 철도에 속했으며 슬레이브 해이븐 지하 철도 박물관(Slave Haven Underground Railroad Museum)으로 알려진 버클 이스테이트(Burkle Estate)로 가보세요. 노예 경매 광고, 노예 무역의 역사와 당시 인종 분류를 보여주는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자유로운 북부 주로 실어갈 배가 오기 전까지 흑인 노예들이 몇 시간, 며칠씩 숨어 지냈던 어두운 지하실을 꼭 찾아보세요. 숙박: 멤피스

국가 인권 박물관(테네시주 멤피스)

3일 차 - 테네시주 멤피스

멤피스의 인권 역사를 알아보려면 먼저 로레인 모텔(Lorraine Motel) 근처에 있는 국가 인권 박물관(National Civil Rights Museum)부터 찾아야 합니다. 로사 파크스(Rosa Parks)가 버스 좌석 양보를 거부함으로써 인종차별에 도전한 사건, 짐 크로(Jim Crow) 흑인 차별 법안, 14세 소년 에밋 틸(Emmett Till)의 살해,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있었던 평화 거리행진 등 흑인 인권 운동의 핵심 사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1968년 4월 흑인 인권 운동의 아버지 마틴 루서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가 발코니에서 암살된 로레인 모텔 306호를 둘러봅니다. 멤피스에 왔다면 과거 이곳 흑인 문화의 중심지였고 지금은 라이브 음악과 맛집으로 넘쳐나는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인 빌 스트리트(Beale Street)를 놓치지 마세요. 스택스 미국 소울 음악 박물관(Stax Museum of American Soul Music)에서는 가스펠 음악부터 신나는 행진곡까지 인권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던 음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택스 레코딩 스튜디오(Stax Recording Studios)는 오티스 레딩

(Otis Redding), 아이작 헤이즈(Isaac Hayes)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티스트를 발굴해 블루스와 가스펠에 목소리를 입히고 스타덤에 올린 곳으로 유명합니다. 멤피스 인권 역사의 필수 코스로는 1800년대 말 해방된 노예들이 자신과 같은 흑인들을 위해 지었고 오랜 세월 인권 운동 지도자 회합의 장소로 이용되었던 유서 깊은 빌 스트리트 침례교회(Beale Street Baptist Church)가 있습니다. 포 웨이(Four Way)에서는 시골식 스테이크, 메기 샌드위치, 순무청, 고구마 파이 등 푸짐한 소울 푸드를 드셔보세요. 1940년대부터 영업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은 인권 운동가들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했으며, 스택스 레코딩 스튜디오가 가까워 B.B. 킹(B.B. King),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 같은 유명 뮤지션들도 즐겨 찾았습니다. 숙박: 멤피스

스택스 미국 소울 음악 박물관(테네시주 멤피스)

4일 차 -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미시시피주 옥스퍼드, 섬너, 머니와 잭슨까지

멤피스 남쪽 약 90분 거리에 있는 미시시피 대학교(University of Mississippi) 옥스퍼드 캠퍼스에는 옥스퍼드 시민 로드 무어헤드(Rod Moorhead)가 만든 인권 기념물이 있습니다. 1962년 미 대법원이 인종차별에 맞선 법정 투쟁을 인정해 미시시피 대학 입학을 허락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 제임스 메러디스(James Meredith)의 동상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31,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고 보호해 준 덕분에 메러디스는 마침내 교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이듬해 이학사 학위를 받아 졸업했습니다. 잭슨으로 가는 길은 1966년 메러디스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흑인의 선거인 명부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벌인 1인 거리행진 '두려움에 저항하는 행진(March Against Fear)'의 코스를 따라갑니다. 에르난도 근처에는 메러디스가 행진 이틀째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세 발의 총알에 맞은 지점을 표시하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20일 후 총상에서 회복한 메러디스가 주도인 잭슨에서 다시 행진에 나서자 15,000여 명의 지지자가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머니(Money)의 브라이언트 그로서리 앤 미트 마켓(Bryant's Grocery & Meat Market)은 가게 전면만 겨우 남아있지만, 이곳은 1955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친척을 방문하러 왔던 14세 소년 에밋 틸이 사탕을 사러 왔다가 당시 가게를 지키던 21세의 백인 여성 캐럴린 브라이언트(Carolyn Bryant)를 희롱했다는 누명을 쓴 곳입니다. 캐럴린의 남편과 이복형제는 에밋을 납치해 폭행하고 결국 총으로 쏴 죽인 후 시체를 탤러해차이강

(Tallahatchie River)에 유기했습니다. 에밋의 어머니는 이 잔혹한 살인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장례식에서 관 뚜껑을 열어두기를 고집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결국 인권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섬너(Sumner)에는 당시 살인 사건 재판이 열렸고 2명의 살인자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은 탤러해차이 법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2시간가량 남쪽으로 더 달리면 잭슨에 도착합니다. 숙박: 미시시피주 잭슨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미시시피주 잭슨)

5일 차 - 미시시피주 잭슨

잭슨은 풍부한 인권 역사의 도시입니다. 2017년에 개관한 미시시피 시민권 박물관(Mississippi Civil Rights Museum)에서 미시시피주의 인권 운동 역사를 자세히 알아보며 여정을 시작합니다. 1963년 메드거 에버스(Medger Evers)가 자택에서 살해당했을 때 발견된 소총 등 유물과 인권 운동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영화도 감상해 보세요. 당시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NAACP)의 지부장이었던 그의 집은 현재 메드거 에버스의 집 박물관(Medgar Evers Home Museum)이 되었습니다. 잭슨 북쪽에는 투갈루 대학(Tougaloo College)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이며 잭슨의 기업에 대한 보이콧,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평화로운 싯인 등으로 확대된 인권 운동의 중심지입니다. 라마르 스트리트(Lamar Street)에 있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에서 1961년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인 27명의 승객이 체포된 사건은 자유의 기수 운동이 남부 전역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숙박: 잭슨

6일 차 -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미시시피주 필라델피아와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까지

북동쪽으로 약 90분을 달리면 1964년 3명의 인권 운동가(흑인 남성 1명과 백인 남성 2명)가 살해되는 이른바 '미시시피 버닝(Mississippi Burning)' 살인 사건이 일어난 필라델피아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마침내 1964 민권법(1964 Civil Rights Act) 통과로 이어진 사건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당시 앨라배마 주지사 조지 월리스(George C. Wallace)가 대학의 인종차별을 유지하겠다는 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1963년 앨라배마 대학교(University of Alabama)에서 흑인 학생 2명의 입학을 막았던 터스컬루사로 갑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 학생들은 무사히 등록을 마쳤고 남부 전역에 인종차별 철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막아섰던 건물인 학내 포스터 강당(Foster Auditorium)은 지난 2005년 국립 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숙박: 터스컬루사

블라운트 문화공원(앨라배마주, 셀마)

7일 차 -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에서 앨라배마주 셀마와 몽고메리까지

남쪽으로 90분을 달리면 1965년 흑인 참정권 쟁취를 위한 3번의 행진이 시작된 셀마입니다. 3월 7일 당시 참가자 600여 명은 공권력의 진압과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폭력에 무자비하게 당했습니다. 이틀 후 인권 운동가 1명의 죽음까지 더해져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로 불렸던 행진은 수천 명의 지지자가 가세하며 셀마로 집결했습니다. 당시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전국적으로 행진 지지를 약속했고, 그해 흑인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기에 이릅니다. 3월 21일 군 병력의 보호 아래 80번 국도(U.S. Route 80)를 따라 행진한 8,000명의 참가자들은 3일만에 마침내 몽고메리에 도착해 50,000명이 넘는 지지자들과 만납니다. 이 여정은 1966년에 국립역사트레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몽고메리는 1955년 용감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부당한 자리 양보를 거부함으로써 인종차별에 저항한 곳으로 대중에 알려졌고, 로자 파크스 박물관(Rosa Parks Museum)에는 1955년 당시 시내 버스가 말 없는 증인처럼 서 있습니다. 이후 몽고메리는 인권 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조직하고 연설했던 덱스터 애비뉴 킹 메모리얼 침례교회(Dexter Avenue King Memorial Baptist Church)도 몽고메리에 있습니다. 교회 지하에는 몽고메리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하고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킹 목사의 생애를 담은 벽화가 있습니다. 숙박: 몽고메리

시민 평등권 기념관(앨라배마주, 몽고메리)

8일 차 -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앨라배마주 터스키기와 조지아주 올버니까지

몽고메리에서 동쪽 40분 거리에 있는 터스키기는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 최초의 흑인 공군 조종사를 일컫는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의 고장입니다. 1950년대 앨라배마주 흑인 참정권 운동가들의 회합 장소였던 버틀러 채플 AME 시온 교회(Butler Chapel AME Zion Church)를 찾아 교회 지하의 박물관 투어에도 참가해 보세요. 터스키기 역사 센터(Tuskegee History Center)는 인권 운동 역사와 다문화 뿌리를 잘 보여줍니다. 동남쪽으로 약 2시간 반을 달리면 참정권과 흑인 차별철폐 운동 단체이자 당시 전 지역에 걸친 대규모 흑인 인권 운동을 최초로 벌였던 올버니 무브먼트(Albany Movement)가 결성되었던 올버니가 있습니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도 지지했지만 체포되었고 실패한 운동이라고 말했지만, 현지인들은 이후 다른 지역의 인권 운동을 촉발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올버니 인권 연구소(Albany Civil Rights Institute)의 체험형 전시를 보며 당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매월 열리는 프리덤 싱어즈(Freedom Singers)의 콘서트도 감상해 보세요. 숙박: 올버니

9일 차 - 조지아주 올버니에서 조지아주 미드웨이와 서배너까지

조지아주의 전원 풍경을 감상하며 대서양 연안을 향해 동쪽으로 달립니다. 약 4시간을 달려 미드웨이에 도착해 히스토릭 도체스터 아카데미(Historic Dorchester Academy)의 박물관을 방문해 보세요. 이곳은 남부 기독교 지도 회의(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가 이후 지역 사회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교사와 지도자들을 교육했던 곳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서배너에는 현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는 물론 1960년 다운타운의 런치 카운터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된 싯인 운동에서 촉발되어 기업 보이콧과 인종차별 철폐로 확대된 서배너 저항 운동(Savannah Protest Movement)의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는 랠프 마크 길버트 인권 박물관(Ralph Mark Gilbert Civil Rights Museum)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한때 이 지역 최대 규모의 흑인 은행이 있던 건물에 있습니다. 자갈길, 예쁜 공원과 광장, 부티크와 세련된 레스토랑 등이 매력적인 예스러운 서배너의 거리를 거닐어 보세요. 숙박: 서배너

조지아주 서배너

10일 차 -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애틀랜타까지

내륙으로 약 4시간을 달려 애틀랜타로 가면 마틴 루서 킹 주니어가 태어난 곳과 그가 묻혀있는 킹 센터(The King Center)가 있습니다. 도착하면 즉시 새로 개관한 민권 및 인권센터(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로 갑니다. 오늘날 인권 운동에 관한 전시는 물론 마틴 루서 킹 주니어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어 애틀랜타의 인권 역사를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다운타운에 머무르는 동안 조지아 수족관(Georgia Aquarium), 월드 오브 코카콜라(World of Coca-Cola)와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Centennial Olympic Park)도 꼭 가보세요. 근사한 레스토랑과 활기찬 나이트라이프 명소도 가득합니다. 숙박: 애틀랜타

11일 차 - 조지아주 애틀랜타

애틀랜타의 풍부한 인권 역사를 알아보는 여행은 전시관 및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생가가 있는 킹 센터와 인종차별이 철폐된 남부 최초의 소방서로 손꼽히는 6번 소방서(Fire Station No. 6)에서 출발합니다. 에버니저 침례교회(Ebenezer Baptist Church)에서 했던 킹 목사의 설교와 연설도 들어보고, '비홀드(Behold)' 기념물이 있는 인근의 세계 평화 장미 정원(World Peace Rose Garden)과 반사 연못에서 고즈넉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불멸의 불꽃(Eternal Flame)과 마틴 루터 킹 목사 부부의 묘도 찾아보고, 국제 인권 명예의 전당(International Civil Rights Hall of Fame)에서 인권 지도자와 선구자들의 발자취도 느껴보세요. 스위트 오번 지구(Sweet Auburn District)와 APEX 박물관(APEX Museum)을 찾아 비디오, 사진, 유물을 통해 미국 흑인 역사도 알아보세요. 숙박: 애틀랜타

12일 차 -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앨라배마주의 애니스턴과 버밍햄까지

자유의 기수 운동의 일환으로 1961년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며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탔던 인종평등회의(Congress of Racial Equality, CORE)의 발자취를 좇아 애틀랜타를 떠나 서쪽으로 달립니다. 앨라배마주 애니스턴에서는 폭도들이 버스를 공격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어 마을까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버스는 화염에 휩싸였고 도망가던 승객들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사건을 기록한 자유의 기수 국립 기념물(Freedom Riders National Monument)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쪽 약 1시간 거리에는 버밍햄 캠페인(Birmingham Campaign)으로 더 잘 알려진 인권 운동 프로젝트 C(Project C)의 도시 버밍햄이 있습니다. 런치 카운터 싯인, 보이콧과 행진은 비폭력 저항이었지만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고, 결국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인권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버밍햄 인권 연구소(Birmingham Civil Rights Institute)에서 인종 평등을 위한 저항에서 버밍햄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세요. 길 건너편 켈리 잉그램 공원(Kelly Ingram Park)에 있는 소방 호스와 경찰견들은 평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공격 무기였지만, 지금 이 공원은 동상과 기념물을 세워 인권 운동 지도자를 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2017년 인근에 인권 국립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애팔래치아산맥(Appalachians) 기슭에 자리해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에 좋은 것은 물론 다양한 맛집과 엔터테인먼트 명소도 많습니다. 숙박: 버밍햄

시민 평등권 연구소(앨라배마주 버밍햄)

13일 차 - 앨라배마주 버밍햄에서 앨라배마주 스코츠보로와 테네시주 내슈빌까지

다음 목적지 스코츠보로는 북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스코츠보로는 1931년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멤피스로 가는 남부 철도 화물 열차에 탔던 9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2명의 백인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누명을 쓴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후 계속 이어진 재판, 판결, 재심, 평결, 상소와 소년들에 대한 가혹 행위는 사법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3년 된 구 조이스 채플 연합 감리 교회(Joyce Chapel United Methodist Church)에 있는 스코츠보로 소년 박물관 및 문화 센터(Scottsboro Boys Museum & Cultural Center)를 찾아 인권 운동을 촉발시킨 세기의 재판에 관한 문서와 자료들을 둘러보세요. 3시간 동안 차를 달려 출발지인 내슈빌로 돌아가면 장장 2주에 걸친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숙박: 내슈빌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VisitTheUSA.com을 방문해보세요.